

호수를 낳고, 숲을 길러 웅대한 풍경을 만들어 낸 화산

일본은 화산이 많은 나라이다. 29 개의 국립공원 중 반 이상(17 개)이 공원구역 내에 화산을 가지고 있다. 또한,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(北海道)는 큐슈(九州)와 함께 거대한 분화를 일으킨 화산이 많다. 이 시코츠토우야(支笏洞爺) 국립공원은 화산이 만든 청량한 호수와 그 호수를 둘러싼 삼림,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구의 고동을 세상에 전하는 화산경관이 주요한 매력 포인트이다. 각지에서 솟아나는 풍부한 온천도 화산활동에 의한 것이다.

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 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시코츠토우야 국립공원은 삿포로시(札幌市) 중심부에서도, 신치토세(新千歳) 공항에서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다.



· 에니와산(恵庭岳)에서 바라본 시코츠호(支笏湖)